부처님오신날 만나는 부처님 미소

‘생각하는 부처’의 시대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올해 부처님오신날 광화문광장을 밝힌 봉축탑에는 두 분의 반가사유상이 나란히 모셔졌다. 화려한 연등과 장엄 속에서도 많은 이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 고요한 미소 앞에 머문다. 천오백 년 전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이 오늘날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시대의 상징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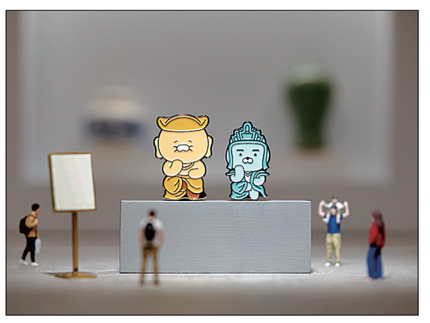
세계를 매혹한 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의 반가사유상 굿즈가 BTS의 멤버 RM 때문에 세계적 히트 상품이 된 후로, 반가사유상 관련 작품과 굿즈, 전시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반가사유상 두 분을 모신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은 세계적 명소가 됐고 굿즈는 품절 행렬을 이어간다. 대통령은 국빈 선물로 반가사유상을 택했고, 젊은 작가들은 이를 현대적으로 변주한 작품을 쏟아내고 있다. 반가사유상이 문화유산을 넘어 하나의 ‘시대적 감수성’으로 읽히고 있다.



불기 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보현사 탑등’이 불을 밝혔다. 남북 평화와 화합의 염원을 담아 조성한 보현사 탑등 좌우에는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국보 금동반가사유상이 모셔졌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금동반가사유상 굿즈.
사진 출처=국립박물관문화재단

‘나’를 돌아보게 하는 미소

무엇이 사람들을 이 오래된 미소 앞으로 이끄는 것일까. 반가사유상의 대중적 인기는 역설적으로 ‘고요함’에서 시작됐다.

AI시대, 정보는 넘치고 속도는 빨라졌지만 오히려 깊이 생각할 시간은 잃어가고 있다. 인터넷과 SNS로 모두가 연결돼 있음에도 마음은 단절된다. 팬데믹과 전쟁, 혐오와 갈등, 불안한 미래 속에서 고립과 피로는 더욱 커진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반가사유상은 특별한 울림을 준다. 한쪽 다리를 올리고 턱을 괸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 반쯤 감긴 눈과 잔잔한 미소. 말없이 앉아 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잠시 멈춰 스스로를 돌아보라.”

사람들은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평온을 갈망한다. 반가사유상의 미소는 그 갈망에 대한 응답으로 다가온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반가사유상 굿즈로 그 미소와 감성을 자신의 공간으로 들여오고 있다. 반가사유상이 ‘힙한 문화유산’이 된 이면에는 이처럼 인간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이 흐르고 있다.

침묵 속에서 자비를 일깨우다

현대불교신문이 올해 봉축특집호 표지에 준초이 작가의 반가사유상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새기고, 욕망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지혜와 자비의 길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반가사유상은 바로 그 불교적 성찰을 가장 아름답게 형상화한 존재다.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 번뇌를 품되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자세, 침묵 속에서 세상을 향한 자비를 일깨우는 존재.

천오백 년 전 불상이 지금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다. 불안한 시대를 건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생각하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준초이 작가가 담아낸 천년의 미소



20년 전, 사진작가 준초이〈사진〉는 처음으로 반가사유상을 마주했다. 백제 대표 문화유산을 기록하는 도록 제작에 참여하면서였다. 그러나 첫 촬영은 실패였다. 어렵게 허락받은 두 번째 촬영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포기하려던 찰나, 불상의 눈썹과 코, 입의 선(線)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반가사유상과의 말 없는 깊은 대화가 시작된 순간이다.

“사진은 대상을 통해 결국 나를 만나는 작업입니다. 반가사유상의 지극한 미소와 세월이 새긴 거친 표면을 담아내며 제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앙대와 일본 니혼대에서 사진을 전공한 뒤 미국 뉴욕에서 광고 사진가로 활동했다. 귀국 후에는 광고와 인물 사진 분야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으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다 2006년 국보 금동반가사유상을 만난 뒤 그의 작업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그 후로 넘어설 대상을 만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반가사유상의 매력에 푹 빠졌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조성 당시에는 또 다른 금동반가사유상(옛 지정번호 국보 78호)을 촬영하기도 했다.

준초이 작가는 반가사유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담아냈다.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은 물론, 어깨의 유려한 곡선이 드러난 뒷모습까지. 자신만의 섬세한 감각으로 반가사유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했다. 최근에는 기존 사진 작업을 넘어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작품과 팝아트 작품도 선보이며 새로운 변주를 이어가고 있다.

그가 올해 현대불교신문 봉축특집호 표지 작업 제안에 흔쾌히 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반가사유상의 아름다움과 그 미소에 담긴 깊은 울림을 만나길 원하기 때문이다. 작품을 무료로 내려받아 휴대전화 배경화면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개한 것 역시 같은 뜻이다.

5월 11일 서울의 ‘준초이스튜디오’에서 만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온 인류를 품어 안기라도 할 것 같은 반가사유상의 그윽한 미소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령 기자

반가사유상을 내 손안에

QR코드를 촬영하면 준초이 작가의 반가사유상 사진 작품 3점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가의 말

금동반가사유상 앞에서



오늘도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작업실 벽에 걸려 있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삼배를 올립니다. 어느새 이것은 하루를 여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가장 맑고, 가장 고요하며, 가장 조심스럽기조차 한 시간입니다.

이보다 더한 호사가 또 있을까 싶다가도 문득, 이런 사치가 나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스물네 시간 가운데 가장 정화된 한순간을 저에게 내어주심에.

저와 반가사유상과의 인연은 스무 해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 반가사유상과 사진가 그리고 박물관 관장, 셋으로 이루어진 좋은 인연이 오늘의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사진가라는 생업이 아니었다면 어찌 그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 수장고의 철문이 열리던 날, 나는 그 앞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 없는 기운에 압도되어 셔터 한 번 누르지 못한 채 첫날 촬영은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두 번째 날, 촬영 장비는 접어두고 최대한 근접한 거리에서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세상이 찬미하는 그의 아름다움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어야 하나? 잠시 흔들렸으나 나는 수장고 밖으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독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기회다.” “물러서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 조명을 밝혔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분명 조금 전까지 없던 것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썹 선에서 시작한 고요한 흐름이 콧등을 타고 내려와 마침내 입술 끝에 머물며 한 줄기 미소가 되었습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그리던 바로 그 자태였습니다. 그윽하고 스며드는 미소!

행여나 그 모습이 순간 스쳐 지나가 버리지 나 않을까 싶은 우려 속에 나의 셔터는 숨 가쁘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진 속 반가사유상이 태어났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처음에는 그의 아름다움과 내 마음의 결이 서로 맞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서야 비로소 그의 사유와 나의 심상이 하나의 균형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찍은 것은 대상 안에 비친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스무 해를 벽에 걸린 그와 마주하며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존재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내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조용히 열어주고 있었을 뿐.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마주한 이는 다름 아닌 너 자신이다. 나는 그저 네가 너를 만날 수 있도록 빗장을 열어준 문이었다.”

매일 아침, 나는 그 문 앞에 앉아 나를 만납니다.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준초이